

# 지구촌 양계뉴스

## ●●● 미국

### 일본산 수입식품류 안전성 검사 강화

미국 백악관은 일본에서 대지진의 충격으로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위험이 증폭됨에 따라 일본에서 수입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난 3월 16일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수입식품 검역 당국이 식품류의 안전성 검사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검역 당국이 일본에서 발생한 상황을 물론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류에 대해 검역을 확실해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워싱턴=연합뉴스

## ●●● 일본

### 지바현, 고병원성 AI 발생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6일 지바시와 카바에 있는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의해 죽은 닭이 발견됐다고 지바현 관계당국을 인용해 지지통신이 지난 3월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I가 발견된 것은 일본 내에서는 24번째이며 지바현에서는 두번째다. AI가 발견되면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닭 6만 2000마리가 살처분되고 농가 소독 등과 함께 반경 10km 이내 이동 제한이 진행된다.

### ●●● “가축 때문에 대피 못간다”

방사선 피폭 우려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이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가축을 두고 떠나지 못하는 축산 농가들의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일본 현지언론 니혼게이지아신문은 지난 3월 17일 키우던 가축들의 폐사 우려에 피난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축산 농가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1원전으로부터 25km 떨어진 소마시에 살고 있는 A씨(65)는 대피령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집을 지키고 있다. 바로 키우고 있던 소 30마리 때문이다.

그는 “아들을 피신시키고 아내와 단둘이 목장을 지키고 있다”면서 “방사선이 두렵긴 하지만 가족 같은 소를 죽게 내버려 둘 순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그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대한 외출을 삼가고 돌아오는 즉시 샤워를 하지만 방사능 오염에서 안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근에 사는 A씨의 친척은 지난 3월 15일 검사에서 방사선 오염 제거가 필요한 수준으로 판독됐다.

원전 근교에서 양계장을 운영 중인 B씨(58)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100만 마리의 닭을 지키기 위해 홀로 남았다.

그는 “가축이 죽는다고 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면서 “피폭위험이 커진다고 해도 대피를 떠나야 할 지는 모르겠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또 다른 축산농가의 C씨(53)도 “소는 하루라도 방치하면 쉽게 병에 걸린다”면서 “상황이 빨리 수습되길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 매일경제

## 베트남

AI 퇴치 백신 확보용 긴급예산 편성

베트남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AI 퇴치를 위한 백신 확보용 긴급 예산으로 3천100억 동(1천490만달러)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천마리 이하의 가금류를 기르는 농가나 군 부대의 경우 백신주사 비용이 모두

면제돼 퇴치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 정부의 이같은 예산 편성은 최근 랑선, 남딩, 빙푹, 타이응웬 등 북부 4개 성과 중부 끈툼 성에 AI가 재발하면서 확산 가능성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 연합뉴스

## 말레이시아

닭고기 고가현상은 한시적

말레이시아 Noh Omar 농산부 장관은 최근의 닭고기 고가현상은 한시적이며 4월 경 안정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에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의 고가현상은 농가들이 3월초부터 증가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 주 원인이며 부족현상은 1월의 중국설과 3월의 방학 기간 중 높은 닭고기 수요로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자국 내 가금류는 충분하며, 현재 수요에 120% 해당하는 자급자족 공급능력이 있다고 Bandar Damansara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지난 2주 동안 여러 판매장소에서 닭고기가 kg당 8.10~8.90링깃(원화 2,800원~3,100원 상당)으로 올라 소비자들의 장보기가 쏠들리고 있다.

문제를 악화시킨 것은 지속된 홍수와 Negri

Sembilan, Malacca, Johor 주의 기상악화가 닭고기 공급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 다른 요인으로는 원료의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는 60%가 오른 고가의 양계사료 때문이다.

장관은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는 말레이시아의 닭고기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의 식품공급은 일본의 재해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육류가 중국, 태국, EU 회원국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의국장 Dr. Abd Aziz는 말레이시아의 일일 닭고기 수요는 120만 마리라고 전하면서 닭고기 판매업자들이 운송 및 제반비용을 벌충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New Straits Times

## ●●● 대만 올 들어 첫 AI 발생


대만에 올 들어서는 처음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행정원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지난 3월 22일 중남부 자이현 시커우향 토종닭 농장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들을 1차로 분석한 결과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이현 가축질병퇴치소 용여우주 소장은 방역검역국에서 지난 3월 21일 통보를 받고 즉

각 농장과 주위를 소독하고 농장 내 5000마리 토종 닭들의 이동과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방역검역국은 닭들의 건강 상태와 이상 사망 현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병원성 H5N1이 아니고 저병원성 H5N2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방역검역국은 그러나 바이러스가 어느 국가 또는 대만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아직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아시아투데이



"대양향에 맛보고 즐기는 우리 닭고기!"

2011 치킨 페스티벌

2011.04.14(목)~16(토)  
Coex 1층 B홀(구 인도양홀)

2011 Chicken Festival

주최 : (사)한국계육협회  
주최 : 2011 치킨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주)엑스포관광호텔  
주최 : 농림수산식품부, 한양사(주), (사)한국조형사(주)등  
2011 치킨 페스티벌 사무국  
전화 02-8800-7211 팩스 02-8800-7219 이메일 info@chickenfestib-01.co.kr